



박주정
한국고원대학교 연구교수

사회자(박주정 교육장):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08년 9월 1일 개교한 용연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합니다.

별칭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면서 함께 고생했던 100명 선생님들의 팔과 열정, 그리고 고귀한 정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다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자는 뜻에서 두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맡으면서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그 당시 장학관이었던 김진구 교장선생님. 또 한 분은 용연학교 행정실장을 맡으셨던 박용정 선생님입니다.

박용정 선생님: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추억이 아련합니다. 그 당시 저는 무신에서 건축 사업을 하

한분 한분이 힘을 모으고 뜻을 세우다 보니 용연학교가 세워졌습니단만 특히 박주정 교육장님, 그 당시 장학사 시절이었죠? 용연학교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지금 생각해보도 자랑스럽고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의 열기는 무더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용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모든 일이 100명의 뜻있는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용연학교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용정 선생님: 그때 용연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아침밥도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회자: 그 당시 용연에 온 학생들은 대부분이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에게 전 자식처럼 아침을 챙겨주셨던 이정자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박용정 선생님: 이회호 여사님도 학교에 다녀가셨죠?

사회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뭇치어를 타고 오셨습니까. 지금도 그 고마운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뭇치어를 타고 오셔서 선생님들의 손을 한 분 한 분 잡아 주시면서 용연의 정신이 김대중 대통령의 뜻과도 통한다는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회호 여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학교발전에 써달라고 금일봉까지 주고 가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김진구 교장선생님: 저는 박주정 교육장님을 2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왔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생을 위한 일이라면 손쉬움하는 모습이 같은 교육자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인 인터뷰

고 있었습니다. 건축이란 잘 하시다시피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대원학교를 짓겠다고 해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지원동에 있는 어느 회교였습니다. 회교에 들어가 보니 제올이는 도무지 염두가 안 났습니다. 회교라고보다는 쓰러지 허지장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풀이 자라서 내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무거웠고, 교실이나 복도는 썩어서 밟으면 푹푹 꺼지고, 등나무가 자라서 학교 건물을 청정 품에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은 전혀 안 해주지,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있지, 그때 당시 학생들이 쉬라고 학교에 잘자까지 지어주었던 고마운 분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용정 선생님: 그때 당시 고생했던 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삶, 편이, 리어커, 어떤 선생님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자마자 주리남으로 갈아입고 그 무더운 여름날 비지땀을 흘리면서 쓰러지를 치우고, 쓰러기가 너무 많아서 밤에 제가 그곳에 자면서 새벽까지 대우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운동장까지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횃불을 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김진구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의 열정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특히 용전에 있는 공동목회장을 지도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에 700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감히 우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사회자: 물론 고생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은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내가 교사였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김진구 교장선생님: 박 교육장님은 장학사 시절부터 금관교실을 개설하는 등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육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용연학교를 설립한 지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때의 용연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세계 속에 꿈을 키우는 학교로 새롭게 만들어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뜻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모였습니다. 항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생각으로 조치일관하면 어쩔 더 있었고 내실 있는 제2의 용연학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진구 교장선생님: 저는 분명히 박 교육장님의 뜻 깊은 계획이 현실로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박용정 선생님: 지도 확실합니다.

사회자: 두 분 선생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우리가 무심코 쓰는 영남(嶺南), 호서(湖西), 호남(湖南)이라는 이름에는 산과 물을 경계 살아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와 공간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남은 '고개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소백산맥의 험준한 관문인 죽령과 조령을 넘어 펼쳐진 경상도 일대를 가리킨다. 호서는 '호수의 서쪽'으로, 충북 제천의 의림지를 기준으로 서쪽에 자리한 충청 지역을 일컫는다. 호남 역시 '호수의 남쪽'으로 그 기준이 되는 호수를 두고 김제 비곡제의 남쪽이라는 설과 금강

은 평이다. 역사를 한 걸만 들춰봐도 아픈 소리가 들리는 곳, 그러면서도 나라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목숨을 바친 땅이 바로 이곳이다. 전국을 이리저리 다녀 보면 어디 하나 아름답지 않은 강토가 없고, 단 한 평이라도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 없는 것이 이 나라다. 그 가운데서도 이 호수의 남쪽 땅, 호남은 역사가 이 나라에 부끄럽게 아껴둔 땅이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언제나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바친 땅이다. '악무호남(若無湖海 是無國家, 이순신 장군이 선조 31년 9월,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뜻을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이라는 말처럼 국난 때마다 가장 많은 의병이 일어났고, 한국

에서는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땅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 한쪽에서는 피추기라고 해도 된다. 국토분단 이후 80여 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남북 갈등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반쪽 남쪽의 지역간 갈등도 여전한 나라인데 이번 호남에 대한 부자도 또 하나 갈등이 더해지는 것은 의향 호남으로서의 갈래하기 어렵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 의로운 땅 호남은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사는 땅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땅도 아니다. 주어진 수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도 역사의 위기 앞에서는 항상 그 존재감을 드러냈던 지역이고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높은 땅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홀로 쥐지 않고 나누어주며 살아왔다. 다른 곳에서 자기 지역에 주지 않았다고 질시하며 불만을 소리칠 때마다 사남게 논을기는 땅이 아니다. 호남은 계급이 없다는 세상을 역사 이래로 꿈꾸어온 무등無等(등급이 없다는 뜻)의 정기가 흐르는 땅이다. 지식의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다니엘 12:4,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통할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일어나서 지식을 다하리라), 과연 이곳 호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호남湖南이라는 땅

하류의 남쪽이라는 설이 엇갈린다. 어느 쪽이든 물길의 남쪽에 펼쳐진 비옥한 땅이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호남에 국가적 차원의 큰 부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거대한 지식의 생태계가 한반도를 이 분야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했고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등의 명분으로 호남을 지목했다. 이를 두고 단군 이래로 가장 큰 역사라는 말까지 하는 이들이 있다. 호수 남쪽의 땅은 신지가 70 퍼센트나 되는 한반도에서 보기 어려운 드넓은 평야가 즐비하다. 김제평야, 나주평야를 비롯 완평, 조선 북평만으로도 이어지는 드넓은 평야는 예부터 외세 수탈의 대상이 되어 아픈 역사를 깊이 품어

의 땀바구니라 불릴 만큼 기름진 땅이다. 거기에 천여 개의 섬과 아름다운 경관, 유네스코 지정문화유산들이 빼곡한 땅이고, 문학과 의로움의 정통까지 함께 품은 땅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문화적 보고이기도 하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 온 이 지역은 결코 경제적 부자라 하거나 흔들릴 곳이 아니다. 김창숙 선생이 인종근 역사 승모비를 세운 자리로 아무 연고 없는 광주를 택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수천 년을 묵묵히 살아지처럼 살아온 땅, 립사비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집을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 올라간 땅이 바로 이곳이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사본 지역을 연상케 한다. 사본의 뜻같은 땅이다. 이제 그 땅에 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한다. 정부



이한규 목사
대전신학교회 담임
시인

외무부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5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고후1:4)
자비의 하나님!

환난과 고난 중에도 남치는 위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자녀들은 수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 그들이 낙심과 비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저희 자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 그 살림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주님으로 믿어붙어 그 마음이 위로받으며 죄에 대하여 혐과 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환난 중에도 남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이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패변곳과 협의를 거쳐 인쇄했다(패변곳: 콤팩트 / 박은주 지음)

**당신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서전 · 회고록 · 설교집, 교회사,
요람, 사보, 교회소식지,
동호회잡지 등 모든 출판물

도서출판 미션21

한 평생 앞만보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서서 달려온 인생길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틈틈히 기록해 온 글들, 오래된 책장 속에서 푹 튀어나온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저서전, 회고록 등으로 지난 삶의 궤적을 남겨 보십시오.

도서출판 미션21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집 · 교회사 · 사보 · 교회소식지 등 어떤 형태의 인쇄물도 언론사 경력 30년이 넘은 전문편집인이 도와드립니다.

원고정리에서 교정, 편집, 디자인 · 출판까지 맡겨주세요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도서출판 미션21 TEL 062-367-9109, FAX 062-367-910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69(3층) / E-mail: phj2930@nate.com